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김 효 정 이 승 연[†] 노 경 란

아이코리아 송파 아이존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아이코리아 송파 아이존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대학생 491명의 부모 애착 척도, 한국청소년개체화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특성불안 척도 결과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첫째,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상관분석 결과, 두 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애착, 분리-개별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의 불안 예측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보았을 때, 남학생의 불안에 있어서는 애착, 분리-개별화, 정서적 지지가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여학생의 불안에 있어서는 분리-개별화, 평가적 지지가 불안을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에서는 앞서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밝혀졌던 정서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여학생에서는 앞서 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밝혀졌던 평가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유의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애착, 분리-개별화, 사회적 지지, 불안, 완충효과, 성차

* 본 논문은 김효정의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slee1@ewha.ac.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박장애 진료인원이 2009년 2만1000여명에서 5년 사이 2만400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즉 강박장애 환자가 최근 5년 간 13.1%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 한 점은 절반에 가까운 45.2%의 환자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한편 국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3-13%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과 같은 청년층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사회적 불안이나 수줍음을 경험한다고 한다(Pilkonis & Zimbaro, 1979). 이와 같이 불안장애에서 청년층의 높은 비율은 청년기의 불안에 대한 취약성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청년층을 대표하는 대학생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기정체감확립 등 중요한 발달과업에 직면하게 되는데,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75.24%), 목표 상실과 가치관 혼란(43.94%), 자율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30.2%)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학, 이경아, 이정화, 2008).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위하여 학업과 진로 및 취업문제로 큰 부담감을 느끼고, 불확실한 미래, 시험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갑자기 늘어난 대인관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김상옥, 2010). 따라서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전을 위해 청년기 발달과업의 성취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서적인 문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

이라 할 수 있다(조화진, 서영석, 2010).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심리학에서는 그동안 대학생의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중에서 애착(attachment)은 Bowlby(1958)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하게 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로 정의한 이래로 현재까지도 중요한 연구 변인으로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애착은 개인이 성장, 발달해 감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와 수정을 겪게 되며 청소년기, 성인기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장휘숙, 1997), Shaffer(1993)의 연구는 불안이 초기의 애착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어머니와의 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정서를 알고 의식하는 정보처리 과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서경험을 종종 무시하며(Wei, Vogel, & Ku, 2005),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유지하는 자녀는 위험상황에서 애착대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 부정적인 정서 조절 방법으로 위협적인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회피를 사용한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발달적으로 과도기적인 시기에 놓인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정서경험이나 위기 상황에 이처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안정적인 적응이 힘들고 결과적으로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디스트레스는 높아 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여러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 경험이 성인기의 적응을 예측하는 인지적, 정서적, 대인 관계적 지표임을 밝혀왔으며(Larose & Boivin, 1998;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Rice, Cunningham, & Young, 1997; Rice, Lopez, & Vergara, 2005), 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정에서 양육자의 영향을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한 연구결과(Shek & Ma, 2001) 역시 애착과 안정적

인 적응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애착과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지 못했을 경우, 청년기에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의 부적응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으며(Armsden & Greenberg, 1987; Bell, Avery, Jenkins, Feld, & Schoenrock, 1985),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애착과 불안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은 여러 번 증명된 바 있다(배성희, 1995; 장휘숙, 1997; 한상희, 2005). 애착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긍정적 정서가 높고, 반대로 불안정 애착일 경우 우울이나 불안감이 증가되었으며(김용희, 2009), 애착유형에 따른 불안을 알아본 연구에서도 회피>양가>안정 애착의 순서로 대인불안이 높게 나타났다(신노라, 2000).

한편 아동기와 성인기를 이어주는 청년기에 부모와의 애착과 독립된 자기(self)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가는 중요한 발달적 이슈가 된다(황수민, 방희정, 신지은, 2010). 즉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이루는 것은 청년기의 또 다른 발달과제이다.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는 유아가 어머니와 공생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지각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제 1의 분리-개별화와, 청소년이 이제까지의 유아적인 대인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부모로부터 탈피해 자신의 정체감을 찾아가는 제 2의 분리-개별화 과정 모두를 일컫는다(Blos, 1979). 청소년기의 주요한 과업이 정체감의 획득을 고려해 볼 때, 정서적인 의존에서 벗어나 정체감을 획득 과정은 대학생의 건강한 적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진 아동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았으며(김세영,

2004),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민정, 2005).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 대체로 결혼만족도가 높았고(윤화정, 2004), 대학생할 적응도 순조로운 편이었다(조화진, 2005). 이러한 분리-개별화 과정은 전 생애의 역동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갈등적 독립이 대학 생활 부적응, 심리적 문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Hoffman, 1984; Rice, 1992). 또한 분리-개별화와 불안, 우울 등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 분리-개별화가 불안과 우울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Quintana & Kerr, 1993). 국내에서도 분리-개별화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는데, 대학생의 분리-개별화와 적응을 살펴본 연구에서 적응의 하위개념인 불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밝혀짐으로써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련성이 입증되었으며(장휘숙, 2002), 분리-개별화가 행동 자율감을 통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용희, 2009).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분리-개별화 역시 불안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은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불안에 영향을 주는 애착과, 분리-개별화 이 두 변인의 관계는 어떠할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일관된 연구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Sullivan과 Sullivan(1980)은 부모와의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단순히 독립하지 못한다면 의존한다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으로서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이해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 Bloom(1987)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의 성취와 자아형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갈등은 부모와의 사이에 잘 형성된 신뢰, 즉 좋은 관계 유지와 밀접한 상관이 있으므로 분리와 독립의 과정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가장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Greenberg, Sirgel과 Leitch(1983)는 자율성 발달과 최적의 적응능력 발달 및 심리적 성숙은 부모와의 따뜻한 애정적 관계에 의해 촉진된다고 하였으며, Moore(1987)는 부모와 분리를 잘 이루어 낸 경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분리의 정도와 부모와의 좋은 관계 유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연구한 장휘숙(2002)은 부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분리-개별화를 이루었으며,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약화시켜야만 성공적인 분리-개별화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Ryan과 Lynch(1989)는 정서적 자율성은 불안정성 및 낮은 자기존중감과 정적으로 상관되어 있으며, 자율성은 곧 탈 애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 Frank, Pirsch 와 Wright(1990)는 부모와의 관계성이 낮아야만 분리와 독립성이 높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윤승경(198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과 독립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독립성은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애착과 분리-개별화에 대한 혼재된 연구 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념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들 두 변인의 관계를 조망해보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는 초기 애착이나 분리-개별화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불안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변인은 무엇이 있을까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을 매개 혹은 조절하는 요인으로서 많은 변인이 밝혀져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초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애착이나 분리-개별화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사회적 관계에서 받게 되는 지지가 애착이나 분리-개별화로 인한 적응의 문제를 완충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구대상인 대학생이 본격적으로 사회로 나아가는 시기에 놓여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대학생에게 사회적 지지라는 변인은 중요하게 다루어 볼 만한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사회관계의 여러 측면을 함축하는 개념으로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감소시키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제하여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과정이다(사회적 지지 연구회, 2002).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을 둘러싼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도움, 정보적 도움, 물질적 도움, 그리고 평가적 도움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신선영(2009)은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으로 개인이 지닌 모든 지지적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였다. Sjolander와 Bertero(2008)는 인간이 현재의 상황과 건강 상태에서 최적의 기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 내렸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환자들의 부정적인 정서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Davis, Cohen, & Apolinsky, 2005), 사회적 지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안녕을 돕는 주효과(Main effect)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적효과를 완충시켜 개인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완충효과(Buffering effect)가 있다(Lakey & Orehek, 2011).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 가설은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으로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자신이 관심 받는 대상이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지각하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설인 반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완충효과 가설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인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자원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다(송중용, 1988). 완충효과와 절차에 대해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스트레스 수준을 하향적으로 인지하도록 하고, 신경내분비체계를 안정시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경감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를 변경시키고 대처 형태를 변경하거나, 자기 지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주효과 모델을 지지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Bal과 그의 동료들(2003)은 성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내적 및 외적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완충효과모형을 지지

하는 Thoits(1993)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대한 생활 사건의 부정적인 충격을 수정 또는 완화시키는 중재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기숙과 박소영(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했다. 홍상욱 외(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족, 또래,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김미례(2006)는 연구에서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개인의 정서적 위기, 부적응행동 등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고 적응적 대처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완충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낮은 사회적 지지 수준이 삶의 질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부적응을 완화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보고도 있다(이선미, 2007; 이신숙, 이경주: 2002). 이 밖에도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많은 연구들이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의 완충모형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분리-개별화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를 가질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성차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은 성장과정 중 서로 다르게 사회화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즉, 여아들이 남아보다 대인관계 지향적이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도록 강화를 받는 반면에, 남아는 여아보다 자기표

현과 자기개방을 억제하며 도움을 구하는 행동은 가능하면 자제하고(이경주, 1997), 독립심을 더 자주 강화 받는다(Fagot, 1978; Serbin, O'Leary, Kent, & Tonick, 1973). 이처럼 성별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회적 지지의 양상이나 효과 등에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성별에 따라 하위요인이 다른 양상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Himle, David, Jayaratne, & Srinika, 1991), 박진아(2001)에 의하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여학생 집단에서는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가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영자(199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경우 불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우울과 불안에 가장 영향을 주는 지지는 정서적 지지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평가적 지지였다.

사회적 지지의 성차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혼재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조아미(2005)의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 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그리고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친구와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윤혜정(1993)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아버지와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엄태완 외(2008)의 연구에서는 친구지지 변인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고, 장영희(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지지 변인에서 성차가 밝혀졌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불일치하는 성차들이 존재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분화 하지 않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의 "주변 사람들"로 정의하도록 하였다. 대신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에 대한 성차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고 박지원의 구분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성차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 모형이 검증 된다면 대학생의 불안 및 사회적 지지의 성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구된 변인들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불안이 높은 내담자들의 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불안과 같은 부적응을 예방 및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사회적 지지 각 하위요인 중 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셋째,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각 하위요인의 완충효과는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는 서울시 소재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512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 21명의 자료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91명(남학생 263명, 여학생 228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는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일괄적으로 질문지가 배부되어 실시되었으며 검사 소요시간은 약 15분 이었다. 피험자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22세, 여자가 20세였으며, 1학년이 245명(50%), 2학년이 102명(19.8%), 3학년이 70명(14.2%), 4학년이 74명(15%)이었다.

측정도구

애착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수정한 개정판 전체 75문항 중, 정정숙(1994)이 번안한 부모애착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설문하였다. IPPA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동료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차원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써 신뢰, 의사소통, 소외의 애착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 차원은 10문항으로(예: 나의 부모님은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 반응의 안정성을 측정하고, 의사소통 차원은 10문항으로(예: 걱정거리가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며, 소외 차원은 8문항으로(예: 부모님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를 향한 분노를 측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서 소외 차원을 구성하는 문항을 포함해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와 애착이 잘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 애착과 부 애착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애착’을 알아보고자 했기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애착을 따로 나누지 않고, 부모전체에 대한 애착을 묻는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7이었다.

분리-개별화

대학생의 분리-개별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aik(1997)가 개발한 LAIQ(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를 백지숙, 도현심, 박성연(1997)이 한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개발한 도구인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 척도(Korean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연결의 영역인 ‘연결’, 그리고 두 가지 분리의 영역인, ‘부모의 통제’, ‘자아신뢰감’ 이렇게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은 청소년과 부모사이에 지속되는 연결의 관계로 7문항(예: 부모님과 나는 정서적으로 가깝다),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이 보는 관점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청소년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4문항(예: 부모님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자아신뢰감은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한 것으로 5문항(예: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의 통제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포함한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

점 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분리-개별화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써, 1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4점 '항상 그렇다'의 범위를 보이며, 모든 응답을 '어머니', '아버지'로 나누지 않고 '부모' 전체에 대해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 이었다.

사회적 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윤혜정(1993)이 수정, 보완한 것을 이영자(1995)가 다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이렇게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지지 7문항(예: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평가적 지지 6문항(예: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보적 지지 6문항(예: 주변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해 줄 것이다), 물질적 지지 6문항(예: 주변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빌려줄 것이다)으로 구성되어 총 25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정서적 지지에서 .91, 평가적 지지에서 .85, 정보적 지지에서 .85, 물질적 지지에서 .88, 전체 .95로 나타났다.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 Gorsuch와 Lushene(1970)가 개발한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 신동균(1978)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상태-특성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상태불안 척도는 피검자가 '지금-현재'이렇게 느끼고 있는가를 응답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불안상태를 측정하는 반면에, 특성불안 척도는 '일반적으로 느끼는(예: 나는 쉽게 피곤을 느낀다)' 바를 나타내는 비교적 안정적인 불안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써, 1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4점 '항상 그렇다'의 범위를 보인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의 안정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것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특성불안 척도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각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사회적 지지 각 하위요인이 불안을 예측하는 상대적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각 각의 성별로 애착, 분리-개별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각 각의 성별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중 성

별에 따라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만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추가적으로 완충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애착, 분리-개별화의 관계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애착은 분리-

개별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r = .58, p < .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서 안정된 애착이 높은 분리-개별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은 서로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들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상관($r = -.46, p < .01$) 애착과 불안의 상관보다($r = -.13, p < .01$) 높게 나왔다. 사회적

표 1.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전체성별)

	애착	분리-개별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불안
애착	-						
분리-개별화	.58**	-					
정서적 지지	.19**	.51**	-				
평가적 지지	.19**	.45**	.76**	-			
정보적 지지	.16**	.40**	.70**	.73**	-		
물질적 지지	.18**	.40**	.68**	.67**	.66**	-	
불안	-.13**	-.46**	-.41**	-.42**	-.31**	-.34**	-

** $p < .01$

표 2.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남학생)

	애착	분리-개별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불안
애착	-						
분리-개별화	.57**	-					
정서적 지지	.26**	.57**	-				
평가적 지지	.25**	.51**	.75**	-			
정보적 지지	.22**	.41**	.67**	.71**	-		
물질적 지지	.19**	.38**	.65**	.62**	.60**	-	
불안	-.15**	-.43**	-.43**	-.43**	-.25**	-.32**	-

** $p < .01$

표 3.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여학생)

	애착	분리-개별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불안
애착	-						
분리-개별화	.60**	-					
정서적 지지	.10**	.46**	-				
평가적 지지	.10**	.38**	.74**	-			
정보적 지지	.09**	.39**	.74**	.75**	-		
물질적 지지	.15**	.41**	.70**	.71**	.72**	-	
불안	-.12**	-.51**	-.40**	-.43**	-.41**	-.39**	-

** $p < .01$

지지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정서적 지지와($r = -.41, p < .01$), 평가적 지지가($r = .42, p < .01$) 불안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착과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들과의 상관은 분리-개별화와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의 상관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두 성별 모두에게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남: $r = .57, p < .01$), (여: $r = .60, p < .01$).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모든 연구변인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불안은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사회적 지지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여학생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애착, 분리-개별화, 사회적 지지 각 하위요인의 불안 예측력에서의 성차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중 어느 것이 불안을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애착, 분리-개별화와 정서적 지지가 예측변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들 변인이 불안을 예측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분리-개별화가 $\beta = -.44$ 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애착이 $\beta = .27$ 로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는 $\beta = -.25$ 로 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형의 전체 설명량은 28%였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분리-개별화, 평가적 지지가 예측변인으로 채택되었다. 불안을 예측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분리-개별화가 $\beta = -.40$ 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평가적 지지는 $\beta = -.28$ 로 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형의 전체 설명량은 32%였다.

대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표 4. 성별에 따른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독립변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R^2	ΔR^2	F
남 학 생	애착		.29***	.27***	-.26***	.24	.24***	39.96***
	분리-개별화		-.59***	-.44***	-.42***			
	정서적지지			-.25***	-.26***	.28	.04***	33.18***
	애착×정서적 지지				.09	.29	.01	20.25***
	분리-개별화×정서적 지지				-.09			
		독립변인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R^2	ΔR^2	F
여 학 생	분리-개별화		-.50***	-.40***	-.39***	.26	.26***	76.79***
	평가적지지			-.28***	-.33***	.32	.07***	53.39***
	분리-개별화×평가적지지				-.16*	.35	.03*	39.57***

*** $p < .001$

지지의 완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투입순서는 연구변인의 시간적, 인과적 순서에 따라 추론되었는데, 우선,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대학생일수록 분리-개별화 수준이 높고, 이는 결국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신미, 2006; 장휘숙, 2002; 조화진, 2005; Mattanah, Hancock, & Brand, 2004)에 따라 (애착 → 분리-개별화)의 순서를 설정하고, 아동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성격의 기본 요소로서 대인관계양식 및 정서조절전략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과 연구결과(Bowlby, 1969, 1988; Cassidy, 2001; Hamilton, 2000; Rice, Cunningham, & Young, 1997)를 바탕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각 양상과 사회적 지지 망의 형성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하여 (부모애착 → 분리-개별화 → 사회적 지지)의 순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1단계에 애착과 분리-개별화를, 2단계에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적 지지를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인 애착 × 정서적 지지, 분리-개별화 × 정서적 지지를 투입하여 불안에 대한 설명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Aiken과 West (1991)의 제안에 따라 변인들을 평균 변환(mean centering)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남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2단계에 투입된 정서적 지지가($\beta = -.25, p < .001$) 불안의 변량을 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효과를 통제한 후 3단계에 투입된 애착과 정서적 지지, 분리-개별화와 정서적 지지의 추가 설명량은 1%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즉 남학생에서는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했던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가 밝혀지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앞서 설정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투입 순서에 따라 1단계에서 분리-개별화를, 2단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평가적 지지를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인 분리-개별화 × 평가적 지지를 투입하여 불안에 대한 설명량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 때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을 변환(mean centering)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1단계에서 분리-개별화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2단계에 투입된 평가적 지지가($\beta = -.28, p < .001$) 불안의 변량을 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효과를 통제된 후 3단계에 투입된 분리-개별

화와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났는데,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 모델의 추가 설명량은 3%였다. 즉 여학생에서는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했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인 평가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밝혀졌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드러난 완충효과와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Frazier, Tix,와 Barron(2004)의 제안에 따라 각각의 변인의 평균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분리-개별화가 낮은 수준,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분리-개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완충효과와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는 평가적 지지 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평가적 지지가 높은 집단(+1SD)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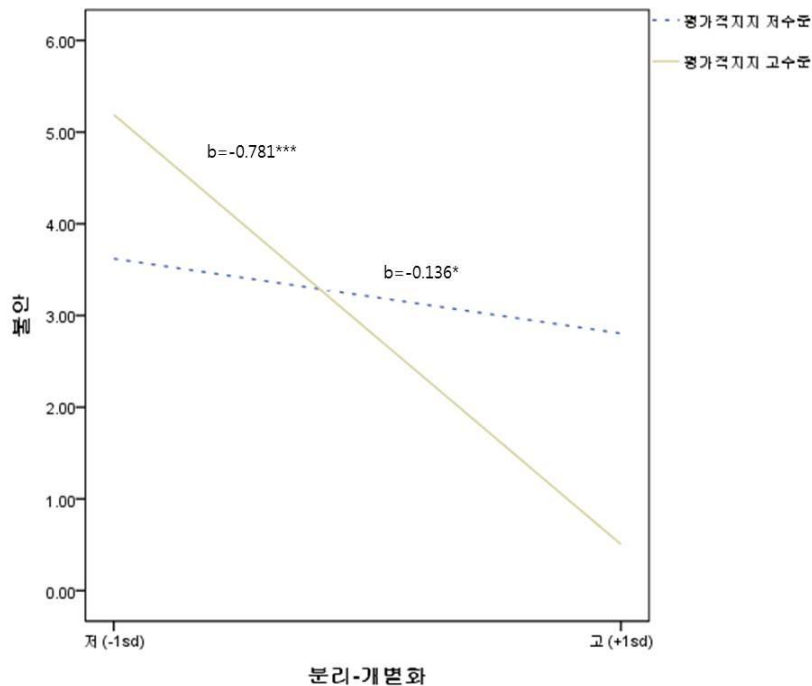


그림 1. 여학생의 분리-개별화와 불안에 있어 평가적 지지의 완충효과

= -.078, $P > .001$)과 낮은 집단(-1SD) ($b = -.136, P < .05$) 모두 분리-개별화가 높을수록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가적 지지가 높았을 때 분리-개별화와 불안 간 부적 상관의 통계적 유의성이, 평가적 지지가 낮았을 때 분리-개별화와 불안 간 부적 상관의 통계적 유의성 보다 높았다. 이는 평가적 지지가 높은 여학생들은 분리-개별화가 높을수록 불안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분리-개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의 완충효과에서, 남학생에게서는 앞서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했던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여학생에게서는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했던 평가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는 불안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할 때에 남녀 각각에게 다른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두 변인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으면 분리-개별화가 높고,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낮으면 분리-개별화정도

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청년기 자녀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하는 것이 높은 의존성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분리-개별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안정적인 애착이 적응의 기반이 되어 분리-개별화를 이루어 내고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Sullivan과 Sullivan(1980), Bloom(1987), Greenberg, Sirmel 와 Leitch(1983)의 연구에서와 애착과 분리-개별화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분리와 연결은 상호관련 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개체화를 이루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중 어느 것이 불안을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자 대학생은 애착, 분리-개별화, 정서적 지지가, 여자 대학생은 분리-개별화, 평가적 지지가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남자 대학생은 타인으로 부터 존경과 신뢰, 애정, 관심, 친밀감을 느꼈을 때(정서적 지지), 여자 대학생은 타인으로 부터의 수용, 긍정적인 환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평가적 지지) 불안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남학생에게서 정서적 지지가 불안의 예측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남성의 경우 보다 독립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

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있는데, 이는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독립적이고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사회적인 기대와 압력으로 인해(Fagot, 1978; Serbin, O'Leary, Kent & Tonick, 1973), 오히려 정서적인 결핍이 더 커지고, 따라서 정서적인 지지가 불안 수준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평가적 지지가 여학생의 불안에서 예측력을 갖는 것은 여학생이 더 대인관계 지향적이고, 타인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는 특성이 강하여(Bamett, Brauch, & Biener, 1987)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평가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는 여학생은 실패에 대하여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귀인 함으로써 무력감을 보이고 실패 이후의 수행이 더 저조하였다고 보고하는데(Dweck, 1976, 1978),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여학생이 타인에 의한 평가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부정적인 평가에 무력감이 수반됨으로써 불안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인정받으며, 의사를 존중받을수록 여학생은 불안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성차는 앞선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이영자, 1994),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서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결과는 Cohen과 Wills(1985)가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정서, 개인의 생활 상황에서 예측성과 안정감,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것과 일치된 연구 결과이다.

셋째, 대학생의 애착과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알아 본 결과 여학생에게서는 평가적 지지의 주효과가 확인되는 동시에 완충효과도 밝혀진 한편, 남학생에게서는 정서적 지지의 주효과는 있었으나 완충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평가적 지지가 분리-개별화의 불안에 대한 영향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지만 이를 완충하는 효과는 없음을 의미한다. 여학생에서 나타난 평가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분리-개별화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모두, 평가적 지지가 증가함에 따라 불안이 감소하였지만, 평가적 지지가 높은 경우 분리-개별화가 높을수록 불안이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즉,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분리-개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의 완충효과에 있어 성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Higgins(1987)는 남성의 경우 자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타인의 관점보다 좀 더 우세하다고 한 바 있고, 이에 반해 Moretti와 Wiebe(1999)는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좀 더 자기에 대한 타인의 관점에 주의를 기울인 다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추론해 볼 때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남학생의 경우 1차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지각되는 애정과 관심, 친밀감이 불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주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외부적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 타인의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여학생의 경우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지 여부가 불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Cohen과 Wills(1985)가 말한 완충효과 가설과 같이 2차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평가를 변경시키고 대처 형태를 변경하거나, 자기 지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완충효과의 성차는 Himle과 그의 동료들(1991)이 사회 복지사들이 소진될 때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여성에게서만 발견한 것과, 안귀여루(1988)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여성의 평가적 지지에서만 발견되었다고 밝힌 것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비록 남학생에서는 완충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여학생에게서 평가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검증된 것은 사회적 지지가 부적응, 우울, 내적통제, 스트레스 등에 대해 완충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Lakey & Orehek, 2011; Thoits, 1993)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불안에 대한 치료적 접근에 있어 남자 대학생은 보다 정서적인 관심, 애정, 친밀감 등의 제공에 주의를 기울이고, 여자 대학생은 수용과 긍정적인 평가 등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이 갖는 완충효과를 알아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 모형을 시도하고 검증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불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의 불안 예측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 성차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는데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과의 관계에서 여학생에게서만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대한 성차를 밝혔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기존에 상반된 연구가 존재하던 애착과 분리-개별화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들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에서는 검증되었으나 애착과 불안의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이는 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관계로 인한 것이었을 수 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애착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연구 모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험자가 특정 연령이나 학교에 편중되었다는데 한계가 있다. 먼저 전체 피험자의 절반이 대학교 1학년 생이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될 수 있다. 또한 여대생의 경우 주된 피험자는 E여대생으로, 여학생의 연구결과에 특정 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 조건에 편중되지 않은 표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보고법인 설문지에만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자기보고식 검사는 피험자들의 지각과 평가가 상이 할 수도 있는데 단점이

있으며, 방어적으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중되게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분리-개별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누지 않고 실시하였다. 애착과 분리-개별화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나누어 애착과 분리-개별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 곽민정 (2005). 초중등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 및 분리개별화 과정에 따른 발달의 분기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례 (2006). 기혼 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욱 (2010).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영 (2004). 아동의 분리개별화가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희 (2009). 아동의 부모 분리개별화와 애착이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행동적 자율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07-124.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 연구. 최신의학, 21(11), 69-75.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배성희 (199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숙, 도현심, 박성연 (1998).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89-102.
- 사회적 지지 연구회(2002). 사회적 지지와 건강. 서울: 현문사.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송종용 (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이중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2000). 성인 애착 유형과 대인불안 수준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미 (2006). 부와 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여대생의 성인애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선영 (2009). 삶의 의미와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성장적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귀여루 (1988).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 완충효과의 성차. 고려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엄태완, 강명진, 최정순 (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사회적 지지: 성차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22, 5-30.
- 윤승경 (1989). 청년기 자녀의 애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정 (2004). 기혼여성의 가족분화 및 분리개별화 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박소영 (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경아, 이정화 (2008). 200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24, 3-44.
- 이선미 (2007).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대처 전략 및 사회적 지지와 간질 환자의 삶의 질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 이경주 (2002).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22(1), 1-20.
- 이영자 (1994).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자 (1995).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 *논문집* 3, 195-242.
- 장영희 (2013). 청소년 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4(1), 88-106.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정정숙 (1994). 자아 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43(3), 137-155.
- 조화진 (2005). 부모와의 애착 및 분리-개별화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한상희 (2005).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대인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홍상욱, 엄경순, 배옥현 (2003). 현대가족에서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 139-155.
- 황수민, 방희정, 신지은 (2010). 애착과 대인관계: 남자 대학생의 부모애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67-86.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l, S., Crombez, G., Van Oost, P., & Debourdeaudhui, I. (2003).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well-being and coping with self-reported stressful events in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7(12), 1377-1395.
- Barnett R. C., Brauch G. K., & Biener L. (1987). *Gender and stress*. New York: Free. Press.
- Bell, N. J., Avery, A. V., Jenkins, D., Feld, J., & Schoenrock, C. J. (1985).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2), 109-115.
- Bloom, M. V. (1987). *Leaving home: A family transition*. The psychology of separation and loss.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Cassidy, J. (2001). Truth, lies and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121-155.
- Cohen, S., & Wills, T.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Davis C., Cohen, R., & Apolinsky, F. (2005). Providing social support to cancer patients: A look at alternative methods.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3(1), 75-84.
- Dweck, C. S., & Bush, E. S. (1976). Sex difference in learned helplessness: I. Differential debilitation with peer and adult evalua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12(2), 147-156.
- Dweck, C. S., Davidson, W., Nelson, S., & Enna, B. (1978). Sex difference in learned helplessness: II. The contingencies of evaluative feedback in the classroom and III. An experi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4(3), 268-276.
- Fagot, B. (1978). The influence of sex of child on parental reactions to toddler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459-465.
- Frank, S. J., Pirsch, L. A., & Wright, V. C. (1990). Late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Relationships among deidealization, autonomy, relatedness, and insecurity and implications for adolescent adjustment and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6), 571-588.
- Frazier, P., Tix, A., & Barron, K.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1), 115-134.
- Greenberg M. T, Sir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 690-694.
- Higgins, T. E.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imle, David P., Jayaratne, & Srinika. (1991). Buffering effects of four social support types on burnout among social workers. *Social Work Research & Abstracts*. Mar91. 27(1). 22-28.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3.
- Lahey, B., & Orehek, E. (2011). Relational regulation theory: A new approach to exhe link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Review*, 118(3), 481-495.
- Larose, S., & Boivin, M. (1998).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support expectations, and socio 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high school college transi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 1-27.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Moore, W. (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98-307.
- Moretti, M. M., & Wiebe, V. J. (1999). Self discrepancy in adolescence: Own and parental standpoints on the self. *Merrill-Palmer Quarterly*, 45(4), 624-649.
- Pilkonis, P. A., & Zimbardo, P. G. (1979). *The person and social dynamics of shyness*. In C. E. Izard (Ed.),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Plenum.
- Quintana, S. M., & Kerr, J. (1993). Relational needs in late adolescent separation-individu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349-354.
- Rice, K. G., Cunningham, T. F., & Young, M. B.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89-101.
- Rice, K. G. (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03-213.
- Rice, K. G., Lopez, F. G., & Vergara, D. (2005). Parental/Social influences on Perfectionism and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4), 580-605.
- Ryan, R. M., & Lynch, J. H. (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 340-356.

- Serbin, L. A., O'Leary, K. D., Kent, R. D., & Tonick, I. J. (1973). A comparison of teacher response to the preacademic and problem behavior of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44, 796-804.
- Shaffer, D. R. (1993).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 Shek, L. P., & Ma, S. (2001). Parent adolescent conflict and adolescent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in a Chinese context. *Adolescence*, 36(143), 545-555.
- Sjolander, C., & Bertero, C. (2008). The significanc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mong newly diagnosed lung cancer patients in sweden. *Nursing and Health Sciences*, 10(3), 182-187.
- Sullivan & Suliivan (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 psychology*, 16, 93-99.
- Thoits, P. (1993).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gavior*, Special Number, 53-79.
- Wei, M., Vogel, David. L., Ku, T. Y., &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d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1차원고접수 : 2014. 07. 27.
심사통과접수 : 2014. 12. 02.
최종원고접수 : 2014. 12. 17.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nxiety: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yo-Jung Kim

Aicorea Songpa AiZone

Seung-Yeon Lee

Ewha Womans University

Kyung-Ran Row

Aicorea Songpa AiZ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nxiety, and to compare the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each gender. The sample comprised 491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The measurements u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 Korean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 Perceived Social Support Inventory, and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ttachm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paration-individuation. Second,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motional support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prediction of male university student's anxiety. On the other hand, in female university stud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evaluative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to anxiety. Finally, interaction effect of emotional support was non-significant in male university student's. But in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teraction effect of evaluative support was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more gender-specific, integrates approaches for anxiety prevention or intervention.

Key words :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Social support, Anxiety, the interaction effect, Gender difference